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196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하나같이 할리우드 키드였다. 입으로는 늘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면서도 영화라면 무조건 할리우드 것을 보았다.

하게 꾸밈었다.

분명 그의 지적은 매우 시의적절(時宜 適切)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화 열풍에 휩싸여 있었다. 국제화라는 개념은 곧 세계화라는 개념으로 대치되었다.

임권택의 우리 것 길어 올리기

일가?

당시 유행한 '대통령 개그'로는 국제화를 '세계' 하는 것이 세계화라고 했다. 세계화 바람은 센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뜨겁고 거셌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바로 우리 것이 세계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환기시켰다.

이들 영화 사이에 그가 연출한 '태백산

맥'은 임 감독의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의 성격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으면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는 숙명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 우파는 물론 좌파까지도 입을 다물었다. 임 감독의 눈에 비친 이데올로기는 한 마디도 의

래적인 것이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 방식, 공존하며 상생을 추구하는 정의적(情誼的)인 방식으로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외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존할 필요가 있었을까? 임 감독이 던진 이 물음 앞에서 우도, 좌도 머쓱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임 감독이 그의 표현대로라면 백 편의 연습을 거쳐 첫 작품으로 내놓은 '달빛 길어 올리기' 역시 그의 우리 것에 대한 애정

의 산물이다. 동양 종이 있지만 중국 종이와 일본 종이 및 한국 종이는 그 특질이 서로 다르다. 일본 종이는 일본 종이다음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한지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우리 종이는 우리나라에서 명맥이 끊길 처지에 놓여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세계적인 상품화 때 만들어내면서도 정작 우리 것은 외면하는 풍토 탓이다.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임 감독이 늘 강조하는 역설 아닌 역설이다. 이미 패라다임 자체가 세계화한 우리 젊은이들은 이 시점에서 임 감독의 역설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고려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내 원전 안전성 지나친 과신 금물이다

원전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3·11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福島)현 제1 원전 1호기, 3호기에서 잇달 폭발이 일어난데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원전은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로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 급수계통 이상, 증기 누설, 냉각수 밸브 고장 등으로 발전이 중단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원전 안전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연이은 교육공무원 자살, 교육청 왜 이러나

광주 교육공무원이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시 교육청의 직원 관리실과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오후 광주 시내 모 아파트에 사는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 A 씨(37·여)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방 안에서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인사발령 뒤 대인관계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고민 끝에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출 업무를 맡아 최근 파문이 일었던 정수기 납품 비리와 관련, 5년간 정수기 관리 자료를 다른 직원과 함께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살은 인사발령 11일 만에, 정수기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교육청 간부가 자살한 지 17일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시 교육청은 충격적인 분위기라고 한다. 최근에 중·고교 3곳의 행정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되는 등 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자살 동기는 경찰의 수가 결과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오후 광주 시내 모 아파트에 사는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 A 씨(37·여)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방 안에서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에 의해 훼손된 것이다. 이후 이 길은 '빛고을 대로'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반일'이라는 '암기'가 빛어낸 불사사였다. 그러나 순한 사람들이 자연재해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는 감정을 앞세워 일이 아니다. 샌다이와 자매결연한 광주시는 사태 직후 강운대 시장이 위로 전문을 보냈고, 지원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다.

제국주의시대 우리 선대에 큰 아픔을 주었던 일본. 그러나 큰 위기에 직면한 그들을 몰살양면으로 돕는 게 도리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NGO 칼럼

신용진



"청년들이 어디에 숨었지?" 대학 잔디광장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하다 흥이 생기면 막걸리 한잔 기울이던 그 청년들의 여유로움은 어디로 갔는가!

최근에 만난 대기업 경영자들은 "요즘 청년들은 입사에 필요한 스펙은 대단하지만 정작 실무에 필요한 능력은 매우 약해.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은 기술의 융·복합과 혁신을 이끌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이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용기를 가져라

후 청년은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담은 문화의 생산자였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 역동성, 창의성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경제·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답답을 이끌어 변화를 만들어 왔었다.

청년들이여! 용기를 가져라. 청년들이여! 용기를 가져라. 청년들이여! 용기를 가져라. 청년들이여! 용기를 가져라.

우석훈은 저서 '88만원 세대'에서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10대에는 학교와 학원에 매이도록 해놓았고, 10세대가 원하는 해체모니를 그대로 담은 교육들을 마치고 나만 엄청난 등록금과 좁은 취직문을 통과하기 위해 눈 돌릴 틈도 없는 대학시절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노력하고 노력해도 20대의 95%가 미래가 불투명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며 청년의 위기를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지면서 청년의 문제가 그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한국경제학의 생태학적 접근방식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석훈은 저서 '88만원 세대'에서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10대에는 학교와 학원에 매이도록 해놓았고, 10세대가 원하는 해체모니를 그대로 담은 교육들을 마치고 나만 엄청난 등록금과 좁은 취직문을 통과하기 위해 눈 돌릴 틈도 없는 대학시절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노력하고 노력해도 20대의 95%가 미래가 불투명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며 청년의 위기를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지면서 청년의 문제가 그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한국경제학의 생태학적 접근방식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고

임희진



예년에 비해 눈도 많이 오고 추웠던 날이 많아 봄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는 3월로 들어서 주변 나무들의 꽃눈이 토실토실하고 가지와 줄기는 약동을 준비하는 듯한 색을 보이고 있다.

들 힘만으로 만들 수는 없다. 광주시가 대한민국의 창조 중심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에 걸맞게 도심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나무심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봄에 한 그루의 나무를

를 함부로 베어낸 탓이었지만 지금은 지속적인 정책과 국민들의 협조로 푸른 산을 이루어 냈다.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시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나무심기 기간으로 설정했다. 시민 식수 보조를 위해 오는 17일 영산강 돌길변에서 자원봉사자, 환경단체, 장애우,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등과 함께 하는 식목행사를 시작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꽃단지 조성, 조경수 및 꽃 전 시판매장 운영, 자투리공간을 이용한 녹색마을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숲의 가치가 매우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등 많은 공원을 만들었고, 학교숲, 담장하늘기, 어린이공원 재정비, 마름공원생태숲 등 다양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미래숲을 만들기 위해 이 기간동안 나무와 꽃을 구입하여 학교 자투리땅에 심어보고, 주택가·아파트 등에는 이웃 주민과 가족들끼리 작은 화단을 조성해보자.

그러나 '숲속의 도시 광주'를 공무원

이 기간동안 나무와 꽃을 구입하여 학교 자투리땅에 심어보고, 주택가·아파트 등에는 이웃 주민과 가족들끼리 작은 화단을 조성해보자.

잘못 맞으면 실명 위험 BB탄 총 판매규제 강화해야

며칠 전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놀던 중 느닷없이 한 손으로 왼쪽 눈을 가린 채 울며 들어왔다. 너무나 놀라서 살펴봤더니 눈 바로 아래가 벌겍게 부어 있었다.

우면 문방구나 완구점에서 BB탄 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 더 큰 문제인 듯하다. 당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물어봤더니 BB탄 총은 사용연령에 따라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구분돼 있어 판매자는 반드시 판매연령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자고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마음만 먹

최근 TV에서 하는 실험을 본 적이 있다. 1미터 전방에 놓인 백열전구를 BB탄으로 박살내는 실험이었다. 이 실험을 본 뒤 BB탄 총에 대한 판매규제가 일관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 발행 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채우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